■ 교구행정책임제, 제산 배경과 방향

# "교구가 행정·교육·복지·포교 책임"

**분담금에 의존해선 10년 뒤 '캄캄'**
**중앙집권식 종단운영 사실상 '불가'**
**재정·인사권 교구로 이양할 수 있게**
**행정력과 역량강화 단계별로 '준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월26일 종단 주요소임자 워크숍에서 밝힌 교구행정책임제 도입시기 교구 내 정찰, 승려교육과 복지, 포교를 책임지는 현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월26일 종단 주요소임자 워크숍에서 교구행정책임제 도입시기 교구 내 정찰, 승려교육과 복지, 포교를 책임지는 현태다. 인사권이 넘어가면서 중앙집권식 재정종법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분담금 제도는 사찰 예산 일부를 관이 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끄지도 한계에 다다른다. 중앙종무기관의 역할은 비대해지는데 분담금대한 의존해서는 해결다 늘 어렵다는 종단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10년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우려 속에서 중앙집무를 줄여 본사로 이관해 교육, 포교, 복지는 본사가 맡고 총무원은 각 본사를 관리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이 도출했다. 신흥종단 규모와 유사한 교구본사에서 출분리 역할을 맡는 것이 원만도 바람이 됐다.

그간 종단은 은사와 상좌라는 도제관계 속에서 승가교육과 복지를 해결해 왔고, 포교 역시 개별 사찰이나 원력 있는 스님들에게 맡기다시피 해왔다. 이런 관행을 맞이나 교구가 감당교육과 복지포교, 인사까지 관장하는 것이 교구 행정책임제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교구에서 내규를 정해 것 출가한 스님의 승가대학 학비 일체를 해당 교구가 부담하고, 소통의 교육과정을 마친 스님에게는 법률스태이나 법원 지도법사 등 소임을 줘 교구의 일을 도록 하는 것이다. 말사주지 인사도 뢰가져모든 변할 수 있다. 사찰 별로 등급을 정해 교구장 인사권가 결과에 따라 원력있는 스님들에게 수사찰 운영을 맡기는 방법도 가능하다. 승가복지도 마찬가지다. 교구에서 기금을 마련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교구 내 특정사찰에 요양시설을 마련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의 재정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구별 직영사찰 지정공연도 줄수 있다는 것이 총무원장 스님의 생각이다.

교구도 행정업무를 이관한 중앙종무기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나 대정부를 상대해 국가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교구나 종도의 권리향상을 책임지게 된다. 대사찰의 역할이나 불교세계화도 중앙종무기관의 몫이다.

중단운영에 새로운 패럿으로 제산은 교구행정책임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그러나 쉽득과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날 위크숍에서도 교구본사의 역량을 고려해 원진적으로 종무행정을 이관해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총무원장 스님은 "강력한 인사권만과 재정통합은 본사만이 할 수 있고, 신흥종단이 해년 일을 교구본사도 할 수 있다"며 "유예기관을 둬서 본사역량을 고려해 원래는 만큼 일부를 이양시킬 계획"이라며 교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어현경 기자 eonaim@buhgyo.com

## 은해사 주지후보 돈관스님 선출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신임 주지후보에 돈관스님(사진) 으로확이 재선출됐다. 은해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경내 도선당에서 신중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주지후보로 돈관스님을 선출했다. 이에 앞서 후보로 등록했던 불산스님은해사 운영부장 선원장이 지난 2월20일 사퇴해면서 돈관스님이 단일 후보가 됐으며, 이날 총회에서 40명은 만장일치로 돈관스님을 선출했다. 신임 주지후보 돈관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대중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돈관스님은 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은해사 기획국장, 환상사 주지,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은해사 주지와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 법규위, 서의현 前원장 특별재심 요청 '수용'

# 종헌위배 '결정'…차회 심리개시 논란 일듯

1994년 종단 개혁 과정에서 제탑도첩대면, 승적을 박탈당하고, 복적 또는 재득도 할 수 없다당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제기한 제탑도첩 정계 특별재심을 요청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혜운스님)는 지난 2월27일 전국불교사암운거기관 분과회의실에서 제77차 정례회 열고 서의현 전 원장이 이 정계 제탑도첩이 결정된 과정에서 벌어진 조계종조계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행 조계종 특별재심을 제사하도록 명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

이날 법규위는 서의 전 원장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계종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교구본사 등 종무행정기관의 법집행을 심판하도록 한 법규위원회 2조2항이 종헌에 위배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이 조항이 호계원의 법 집행을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해 법규위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의현 전 원장의 제탑도첩 정계 특별재심 요청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법규위는 차기 회의에서 심리를 개시한다. 다음 회의는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규위원장 하운스님과 지산스님, 경선스님, 재원스님, 원산스님, 종산스님, 정여스님, 보경스님 위원이 참석했다.

어현경 기자 eonaim@buhgyo.com

## "교구별 승려복지회 설립해 달라"

### 총무원,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요청

조계종이 지난 2월28일 열린 전국 교구본사주지 회의에서 교구마다 승려복지회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총무원 총무부장 지원스님(승려복지위원장)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교구별 승려복지회 구성 및 운보공양운동 동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11년 3월 승려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종단은 65세 이상으로 소임이 없는 스님들에게 임원에 및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더 나가 2014년 4월부터는 수행연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총무부장 스님은 교구차원의 승려복지 사업 실천을 부탁했다. 승려복지법 제7조3항에 따라, 교구 승려복지위를 구성과 관련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이다.

수행연금 지급에 앞서 재원마련을 위해 3월부터 대대적인 승보공양운동 통해 기금마련을 추진해도 동참해줄 것을 원했다. 오는 3월19일부터 26일까지 총림한국일 기간을 집중기간으로 정해 승보공양법회와 기금모금운동을 벌여가는 데 종도들의 참여를 유도해달라는 것이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복지재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고령화 시대흐름에 맞춰 승려복지 수혜대상을 65세에서 70세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것과 병원비 일부를 지급하기보다 종단 차원에 요양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또 교구 재적수에 대한 복지는 교구별로 책임 양제 시행하고 종단은 일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에도 소종무행정학교 운영 계획 보고와 건 스종교인 과세 관련 대응 방안 보고의 건 스20131조도 중앙종무기관 결산 보고의 건 스운문부 사업 현안 보고 및 현도 요청의 건 스신도등록법의 안내의 건 스 관국전 생 정정60주년 '관반도 평화대장' 봉행의 건 스불기2557(2013)년 중앙신도회 사업보고의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어현경 기자 eonaim@buhgyo.com

## "방장 자격요건 다양화해야"

### 교구본사 주지 총림법 개정관련 의견 제시

2월27일 진행된 종단 주요 소임자워크숍에서는 종단제도위원회와 중앙종회 종원종법법 특위가 최근 제안한 총림법 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총림법 개정안 가운데 방장 자격요건을 "종원 과 때한가지로 '전, 교, 율을 관비한 본분종사라야 한다'로 규정해자는 의견에 공감했다. 방계사 주지 성조스님은 "방장은 선원 강원 율원 영불원을 총괄하는 스님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후학들을 제접할 수 있는 스님이면 방장으로 제접해 주실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만가 넘던 이전에도 자격조건을 다양화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선원에서 20만가를 성만했거나, 교학을 연구한 강백이나 율사 스님들이 그 밖에서 입가를 이뤄 산중에서 존경을 받는다거나 또 종단에 원로의원이나 종무원장이나 중요 요직을 경험하고 종도들에게 존경받은 스님도 방장에서 추대할 수 있도록 넓히자는 의견도 불교사 주지 선타스님은 "정불교 정신에 입각해 총림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정수스님도 "불선사는 "불선사는 교단도량인데다가 운허스님이 주지했고 광안대장 정정 반여한 도량이지만 교구총림제 도입되게 한 것이 다행이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im@buh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雙 溪 寺

*육조혜능대사의 정상이 모셔진 禪의 本體이자, 녹차의 시배지이며, 해동법맥의 최초 발상지*
*禪·茶·音의 성지, 제13교구본사 쌍계사에서* **율원, 승가대학**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_ 비구스님 (2013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 모집인원 _ 00명
- 접수일자 _ 2013년 1월 10일 - 3월 31일(일) 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및 면접
- 면접일자 _ 2013년 2월 28일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2. 승려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통
  3. 수행이력서 1통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1통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1통
  6. 증명사진(반명함판) 3장
- 문 의 처 _ (055)883-1901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28(쌍계사)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원허

## 쌍계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입학자격 _ 대한불교조계종 사미계 수지자고(3년 을 사미계 수계자 입증가능)
- 모집대상 _ 치문반(1학년) 00명, 사집반(2학년) 00명, 사교반(3학년) 0명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사본 (앞면1매) 1통
  (3) 수계증명서, 행자교육증명 사본 각1통
  (4) 증명사진 4매
  * 편입생은 수료증명서 지참 필
- 접수마감 _ 불기2557(2013)년 **3월 31일(일) 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및 면담
- 준 비 물 _ 반려가사, 장삼, 승려증
- 문 의 _ 경원 (055)883-1905, 종무소 (055)883-1901
- 기 타 _ 전학년 정교부 무상지원, 편산실 관리, 의료비 지원
  미국 원어민강사 상주 매일 아침 영어회화 강좌

쌍계사승가대학 학장 통광

교수 월호, 덕원, 혜봉, 상진, 신홍
영어강사 Daniel M. Burkus(뱀장어나라 주임대 출장)